<h1>나 혼자만 레벨업-79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qee55323fc6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79화</p>  
<p>나쁜 제안은 아니었다.</p>  
<p>고건희가 등을 밀어준다면 평범한 사람도 금방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다.</p>  
<p>국회, 정부, 협회, 언론까지.</p>  
<p>고건희가 입김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니까.</p>  
<p>하물며 그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 S급 헌터라면?</p>  
<p>'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짐작도 안 되네.'</p>  
<p>문득 진우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고건희 의원의 옆 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.</p>  
<p>가슴이 조금 뛰었다.</p>  
<p>'쉽게 오는 기회는 아니겠지.'</p>  
<p>고건희가 제안한 '다른 길'은 걷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함부로 발을 들일 수 있는 길이 아니니까.</p>  
<p>하지만.</p>  
<p>거기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다.</p>  
<p>'협회로 가면 더 이상 레벨을 올릴 수가 없게 된다.'</p>  
<p>협회 소속의 상급 헌터들은 사냥을 하지 않으니까.</p>  
<p>그들의 주 업무는 다른 헌터들을 상대하는 것이지, 마수 사냥이 아니었다.</p>  
<p>겨우 허락을 받아 협회의 레이드에 낀다고 해도.</p>  
<p>'협회가 맡는 던전이라고 해 봐야 길드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D, E급 수준.'</p>  
<p>경험치도 주지 않는 저렙들을 잡고 살 건가?</p>  
<p>아니, 그럴 순 없지.</p>  
<p>진우는 속으로 강하게 부정했다.</p>  
<p>'나는 더 강해지고 싶다.'</p>  
<p>더 높은 곳으로.</p>  
<p>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가 보고 싶었다.</p>  
<p>아예 불가능하다거나 확신이 없다면 모를까,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그걸 포기하라고?</p>  
<p>어림없는 소리.</p>  
<p>'레벨업이 멈추지 않는 한 나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.'</p>  
<p>두근.</p>  
<p>두근.</p>  
<p>아까 고건희 협회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신을 상상했을 때보다 더 강하게 심장이 요동쳤다.</p>  
<p>고건희도 진우의 변화를 느꼈다.</p>  
<p>'갑자기 호흡이 빨라졌군. 드디어 결단을 내린 건가?'</p>  
<p>부디 좋은 결과면 좋으련만.</p>  
<p>'아니. 꼭 좋은 결과여야 한다.'</p>  
<p>남은 시간을 생각하면.</p>  
<p>진우만큼 흥분된 심정으로 고건희는 대답을 기다렸다.</p>  
<p>1초가 1분 같은 시간이었다.</p>  
<p>진우가 입술을 뗐다.</p>  
<p>"죄송합니다."</p>  
<p>고건희의 얼굴이 굳어졌다.</p>  
<p>'방금 의지가 넘치는 얼굴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었는데... 내 착각이었나?'</p>  
<p>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.</p>  
<p>'결국 성진우라는 남자의 그릇은 이 정도였던 거군.'</p>  
<p>다른 길을 돕겠다는 말은 허언이 아니었다.</p>  
<p>실은 그 이상을 생각했다.</p>  
<p>'2년 만에 나타난 S급...'</p>  
<p>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일을 가르치면서 가능성이 보일 경우 자기 뒤를 잇는 재목으로 키우려 했다.</p>  
<p>자신이 사라졌을 때 협회를 지탱할 수 있는 강한 힘이 필요했으니까.</p>  
<p>그건 곧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물려주겠다는 소리였다.</p>  
<p>그런데 결과가 이 모양이라니.</p>  
<p>'꼴이 우습게 됐군.'</p>  
<p>고건희는 내밀었던 배지를 거두며 푸념처럼 물었다.</p>  
<p>"역시... 돈입니까?"</p>  
<p>진우는 칼같이 대답했다.</p>  
<p>"아닙니다."</p>  
<p>고건희는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다.</p>  
<p>'다들 말은 고상하지.'</p>  
<p>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같다.</p>  
<p>결국은 돈이다.</p>  
<p>거기에 인기까지 따라오면 금상첨화고.</p>  
<p>'하기야...'</p>  
<p>재물을 좇는 것이야 인간의 당연한 본성인데 그걸 힐난할 생각은 없었다.</p>  
<p>단지 스스로 솔직하지 못하는 이들이 가소로울 뿐.</p>  
<p>"그럼 어째서 거절하신 겁니까?"</p>  
<p>고건희는 답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물었다.</p>  
<p>그냥 반응을 한번 보고 싶었다.</p>  
<p>그런데.</p>  
<p>"저는 싸우고 싶습니다."</p>  
<p>망설임 없이 나온 진우의 한마디가 고건희의 뒤통수를 때렸다.</p>  
<p>'뭐라고?'</p>  
<p>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.</p>  
<p>"그건... 마수들과 싸우고 싶다는 뜻입니까?"</p>  
<p>"예."</p>  
<p>진우는 불필요한 설명은 전부 덜어내고 솔직하게 진심을 밝혔다.</p>  
<p>"게이트로 들어가 마수들을 처치하고 싶습니다.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던전 안이라고 생각합니다."</p>  
<p>'이럴 수가.'</p>  
<p>고건희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수많은 이들의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다른 이의 눈빛만 봐도 그가 진실을 얘기하는지, 거짓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있다.</p>  
<p>그 위치는 그래야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니까.</p>  
<p>그래서 고건희는 알 수 있었다.</p>  
<p>'저 눈은... 진심이다.'</p>  
<p>진우를 바라보는 고건희의 눈빛이 180도 달라졌다.</p>  
<p>'이런 느낌이 얼마 만이지?'</p>  
<p>힘을 각성했을 때 이미 고건희는 너무 노쇠한 몸이었다.</p>  
<p>그래서 마수들과 싸우는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다.</p>  
<p>자기 소유의 사업체를 처분한 돈으로 협회를 세우고, 헌터들을 모으고, 인기를 토대로 국회로 진출해 헌터 관련법들을 제정했다.</p>  
<p>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녀도 채워지지 않았던 근원적인 아쉬움.</p>  
<p>'나도 20년, 아니 10년만 더 젊었어도 이런 젊은이들과 함께...!'</p>  
<p>두근, 두근, 두근.</p>  
<p>고건희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.</p>  
<p>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았던 심장이 지금은 가쁘게 뛰고 있었다.</p>  
<p>'내 심장이 아직 이런 소리를 낼 수 있었구만.'</p>  
<p>기분 좋은 고동이었다.</p>  
<p>반면 진우는 고개를 갸웃했다.</p>  
<p>'이상한데?'</p>  
<p>협회와 등질 각오까지 하고 협회장의 제안을 걷어찼는데, 협회장은 어딘지 모르게 기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.</p>  
<p>'뭐, 아무래도 상관없지만...'</p>  
<p>하고 싶은 말은 다 했으니.</p>  
<p>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.</p>  
<p>"동생 혼자 집을 지키고 있어서 이만 가 봐야겠습니다."</p>  
<p>"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."</p>  
<p>진우를 따라 일어난 고건희가 품에서 뭔가를 꺼내 내밀었다.</p>  
<p>"그리고 이거."</p>  
<p>손에 들린 건 명함이었다.</p>  
<p>'...?'</p>  
<p>"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."</p>  
<p>고건희는 환하게 웃었다.</p>  
<p>진우의 말이 맞았다. 강한 헌터는 던전에 있어야 했다.</p>  
<p>비록 성진우를 포섭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헌터협회의 장으로서, 혹은 한 명의 헌터로서 고건희는 가능한 한 성진우를 돕고 싶어졌다.</p>  
<p>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.</p>  
<p>'이 청년이 마음에 들었다.'</p>  
<p>그래서 조언할 것도 좀 있었다.</p>  
<p>장소리란 무릇 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.</p>  
<p>"혼자서 상급 던전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. 그러니 길드를 선택하실 때에는 부디 신중하시길."</p>  
<p>당신의 선택에 따라 판도가 크게 달라질 테니.</p>  
<p>고건희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들은 진우가 짧은 순간 묘한 미소를 보였다.</p>  
<p>"감사합니다."</p>  
<p>명함을 지갑에 넣은 진우가 고건희와 우진철에게 가볍게 인사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.</p>  
<p>"후-"</p>  
<p>한숨과 동시에 고건희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.</p>  
<p>"괜찮으십니까?"</p>  
<p>고건희의 심기가 불편할 것이라 지레짐작한 우진철이 재빠르게 다가왔다.</p>  
<p>하지만 고건희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.</p>  
<p>"아니야. 난 괜찮네."</p>  
<p>암, 괜찮다마다.</p>  
<p>이 얼마나 오랜만에 맛보는 만남의 즐거움인지.</p>  
<p>한참 동안 미소를 머금고 있던 고건희가 고개를 돌려 수행원에게 지시를 내렸다.</p>  
<p>"오늘 약속은 전부 취소해 주게."</p>  
<p>"하지만 오늘은 장관님들과의 약속이."</p>  
<p>"하나도 남김없이 전부."</p>  
<p>그렇게 말하며 씩 웃었다.</p>  
<p>"오늘은 그 꼰대들에게 감정을 낭비하기 싫으니 말일세."</p>  
<p>이 기분 좋은 여운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간직하고 싶었다.</p>  
<p>문득 우진철에게 향하는 고건희의 시선.</p>  
<p>협회장의 보기 드문 미소에 우진철도 들뜬 마음이 됐다.</p>  
<p>"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?"</p>  
<p>"다른 게 아니라 말이야, 자네..."</p>  
<p>약간 뜸을 들이던 고건희가 턱밑을 만지작거렸다.</p>  
<p>"오늘 나하고 술 한잔하겠는가?"</p>  
<p>생각지도 못한 말에 우진철이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"제가 술을 못해서...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?"</p>  
<p>"어허, 이 사람 그렇게 안 봤더니."</p>  
<p>고건희가 장난스럽게 혀끝을 끌끌 찼다.</p>  
<p>"사내는 자신이 마실 수 있는 술잔의 크기만큼 세상을 담을 수 있다는 말도 모르는가?"</p>  
<p>"죄송합니다, 협회장님."</p>  
<p>우진철은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뒷머리에 손을 얹었다.</p>  
<p>"농담일세. 기분이 좋으니 농담도 슬슬 나오는군."</p>  
<p>사실 진짜 술잔을 나눠보고 싶은 상대는 따로 있기도 하고.</p>  
<p>고건희의 시선이 진우가 사라진 복도 끝으로 향했다.</p>  
<p>'성진우 헌터...'</p>  
<p>저 친구는 주량이 얼마나 될까?</p>  
<p>언제 한번 꼭 같이 잔을 나눠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고건희는 옅게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끼익.</p>  
<p>덜컹.</p>  
<p>진우는 멈춰선 버스에서 내려섰다.</p>  
<p>'동생 핑계를 대고 나왔지만...'</p>  
<p>시계를 보니 아직 동생이 도착하긴 이른 시간.</p>  
<p>진우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.</p>  
<p>틱, 틱.</p>  
<p>익숙하지 않은 소음에 고개를 돌렸더니 멀리에 맛이 간 가로등 하나가 보였다.</p>  
<p>'그러고 보니.'</p>  
<p>주위가 너무 어두웠다.</p>  
<p>워낙 후미진 동네라서 조금만 큰 길을 벗어나도 이렇게 어둡고 인적 드문 장소가 나온다.</p>  
<p>그러다 문득 얼마 전에 들었던 뉴스를 떠올렸다.</p>  
<p>'요 근처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사건.'</p>  
<p>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던가?</p>  
<p>지금 이 길도 동생이 자주 다니는 길이었다.</p>  
<p>그것도 밤 늦게.</p>  
<p>'동생 학교가 가까워서 마음대로 이사 갈 수도 없고.'</p>  
<p>괜히 걱정되기 시작했다.</p>  
<p>발견만 하면 범인을 잡는 거야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, 걱정된다는 이유로 밤마다 길에 서 있을 수도 없는 노릇.</p>  
<p>무슨 방법이 없을까?</p>  
<p>팔짱을 끼고서 머리를 굴려 보던 진우가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.</p>  
<p>'나 대신 다른 애들을 세워 놓으면 되지.'</p>  
<p>이럴 때 딱 쓰기 좋은 애들이 있지 않은가?</p>  
<p>"나와."</p>  
<p>진우의 부름에 그림자 병사들이 나타났다.</p>  
<p>'다섯 명 정도면 충분하겠지.'</p>  
<p>같이 악마성 원정을 다니면서 잘 키워 둔 병사들이다.</p>  
<p>보기만 해도 든든했다.</p>  
<p>"앞으로 너희가 이 동네 자경단이다. 지금부터 순찰 실시."</p>  
<p>말이 끝나자마자 병사들은 그림자 상태로 돌아갔다.</p>  
<p>그리고 건물이나 다른 사물의 그림자들에 흡수됐다, 나왔다를 반복하며 이동을 시작했다.</p>  
<p>'그래. 그렇게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조심히 돌아다녀라.'</p>  
<p>아오, 귀여운 녀석들.</p>  
<p>묻지 살인범이 상급 헌터 수준이 아니고서야 그림자 병사를 당할 길은 없었다.</p>  
<p>만에 하나 그렇다고 해도 병사들에게 이상이 생기면 자신이 바로 알 수 있었다.</p>  
<p>S급 헌터.</p>  
<p>'아니, 아직 정식 자격증은 안 나왔으니 S급 각성자라고 해야 하나?'</p>  
<p>뭐 아무려면 어떤가</p>  
<p>헌터든 각성자든 S급이 지켜 주는 동네라니.</p>  
<p>24시간 무료 방범 시스템이 세간에 알려지면 모르긴 몰라도 땅값이 몇 배로 폭등하지 않을까?</p>  
<p>피식 웃음이 나왔다.</p>  
<p>'좋아.'</p>  
<p>이 정도면 안심이다.</p>  
<p>주위를 둘러보던 진우가 흡족한 얼굴로 돌아섰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"밥 먹자고 해서 급하게 달려 나왔더니 대패 삼겹살이야?"</p>  
<p>"어? 지금 삼겹살 무시해?"</p>  
<p>"..."</p>  
<p>"여긴 나와 형님의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이라고!"</p>  
<p>얼굴이 벌겋게 변한 유진호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콧김을 내뿜었다.</p>  
<p>"그래서 그 추억의 장소에 나는 왜 불러들인 건데?"</p>  
<p>유수현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.</p>  
<p>자려고 누웠다가 방금 전 유진호의 전화를 받았다.</p>  
<p>-누나, 나 위로 좀 해 주라.</p>  
<p>-웬일로 누나래?</p>  
<p>-누나아아아-</p>  
<p>징징거리는 목소리가 하도 불쌍해서 나와 줬더니 데려온 곳이 이런 데라니.</p>  
<p>재벌가의 아가씨로 곱게 자라 지금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유수현이 못마땅해하는 것도 당연할 수밖에.</p>  
<p>힐끔 힐끔.</p>  
<p>급하게 나온다고 대충 꾸민 데다가 모자까지 눌러썼는데도 주위 남자들의 시선이 계속해서 날아들었다.</p>  
<p>"뭔데 그래? 말을 해 봐, 말을."</p>  
<p>비어 있는 유진호의 잔에 소주를 따라 주며 유수현이 물었다.</p>  
<p>"봐 봐, 이거. 형님이 내 전화 피하시는 거 맞지?"</p>  
<p>유진호가 울먹이며 폰을 내밀었다. 액정에는 통화 기록이 길게 남아 있었다.</p>  
<p>한 번의 통화와 네 번의 통화 실패.</p>  
<p>그나마 처음 연결된 통화 한 번도 대화 도중 끊겼다고 한다.</p>  
<p>"지금 아는 사람이랑 통화가 안 된다고 나를 불러낸 거야?"</p>  
<p>끄덕끄덕.</p>  
<p>유진호는 고개를 움직였다.</p>  
<p>"하-"</p>  
<p>기가 찬 유수현이 유진호의 전화를 뺏어들었다.</p>  
<p>"어디 줘 봐."</p>  
<p>빠르게 전화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자.</p>  
<p>뚜르르-</p>  
<p>울리던 신호가 잠시 뒤 끊겼다.</p>  
<p>그러자 유수현이 도끼눈을 떴다.</p>  
<p>"야이."</p>  
<p>"응?"</p>  
<p>유진호가 고개를 들었다.</p>  
<p>"딱 15초 울리고 끊기잖아. 이건 전화를 피하는 게 아니라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거고, 통화 중에 끊겼다면 배터리가 나간 거겠지."</p>  
<p>"...정말?"</p>  
<p>"안 믿기면 다시 걸어 보던가."</p>  
<p>뚜르르-</p>  
<p>유수현의 말대로 15초 만에 신호가 끊어졌다.</p>  
<p>"진짜네?"</p>  
<p>유진호의 얼굴이 환해졌다.</p>  
<p>"이제 해결됐지? 나 간다."</p>  
<p>매몰차게 떠나려는 유수현의 소매를 유진호가 붙들었다.</p>  
<p>"누나아아- 마시던 것만 다 비우고 가자!"</p>  
<p>"이럴 때만 누나다, 누나야."</p>  
<p>평소에는 잘도 너, 인마, 야로 부르는 녀석이.</p>  
<p>결국 유수현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.</p>  
<p>"어? 누나도 마시게?"</p>  
<p>"마시던 것만 비우고 가자며? 혼자서 마시는 걸 언제 다 기다려."</p>  
<p>"역시 우리 누나밖에 없다."</p>  
<p>"됐거든?"</p>  
<p>말은 그렇게 해도 어느새 두 사람은 화기애애하게 술잔을 비워 갔다.</p>  
<p>"그런데 그 형님이란 사람, 도대체 누구야?"</p>  
<p>"곧 알게 될 걸?"</p>  
<p>유진 길드에 들어온다면.</p>  
<p>그렇게 말하려던 유진호가 높은 곳에 설치해 놓은 가게 안 TV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.</p>  
<p>"어, 저 사람...?"</p>  
<p>유수현도 TV 쪽을 돌아보았다.</p>  
<p>화면 속 뉴스에서는 최근 톱스타로 활약 중인 배우 이민성의 각성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.</p>  
<p>구름처럼 모여든 기자들 앞에서 이민성이 쑥스러운 듯 입을 열었다.</p>  
<p>-아직 촬영 일정이 끝나지 않아서... 각성자 등급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...</p>  
<p>아래 자막에는 이민성이 조만간 헌터협회에 들러 등급 심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.</p>  
<p>"와... 역시 한류 스타 이민성! 기자들 수 좀 봐. 저기 중국 기자도 와 있네."</p>  
<p>유진호가 감탄을 터트렸다.</p>  
<p>그러나 유수현은 눈살을 찌푸렸다.</p>  
<p>"어떻게 저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대지?"</p>  
<p>"엉?"</p>  
<p>"아는 사람은 다 알거든. 저거 다 쇼라는 거. 이미 A급을 받아 놓고서 언론에 크게 터트리려고 언플하고 있는 거래."</p>  
<p>"쇼를 한다고? 겸손의 상징 이민성이?"</p>  
<p>유수현이 혀를 찼다.</p>  
<p>쯧쯧.</p>  
<p>'어쩜 다들 이리도 모를까?'</p>  
<p>뒤에서 남 험담하는 거 같아 참고는 있지만, 이민성을 실제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평가는 그야말로 최악이었다.</p>  
<p>카메라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넘사벽인 남자.</p>  
<p>유수현이 정말 싫어하는 부류였다.</p>  
<p>그냥 이중적인 것뿐이라면 모른 척 넘어가겠는데, 또 치근덕대기는 얼마나 치근덕대는지.</p>  
<p>얼마 전에도 뜬금없이 연락해 와 '같은 헌터'가 됐다면서 작업을 걸어오는 통에 전화를 끊느라 한참 애를 먹었었다.</p>  
<p>'재수 없는 인간...'</p>  
<p>각성자가 되기 전에도 건방이 하늘을 찌르던 인간인데 A급 헌터가 되면 얼마나 더 콧대가 높아질까?</p>  
<p>거기에 A급 판정을 받는 장면이 카메라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게 생겼으니.</p>  
<p>'이런 쪽으로는 진짜 머리 잘 굴린다니까.'</p>  
<p>유수현은 절레절레 고개를 저으며 술잔에 남은 술을 마저 들이켰다.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